



그림사랑동우회  
경기도 안양시 안양 1동 97-11  
전화 44-8942

때 : 1987년 12월 5일 (토) ~ 6일 (일)

곳 : 안양근로자회관강당 (장내동성당앞)

※ 12월 5일 오후 6시부터 창립대회와 그림굿  
공연이 있습니다 (기념판화증정)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



## “우리그림” 창립대회 식순

### 1부 • 개 회 사

- 준비위원장 인사
- 경과보고
- 회칙심의 채택
- 임원선출
- 대표인사
- 사업계획 보고
- 격려사
- 축사
- 폐회사

### 2부 그림굿 공연

### 3부 뒤편이

## 회 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이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는 경기도 안양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민족미술에 대한 연구와 서민대중의 삶에 기초한 미술의 창작 및 보급을 통하여 안양지역의 건강한 미술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민족미술의 창작과 보급
- (2) 미술문화에 대한 제반 조사 및 연구
- (3) 정기적인 미술강좌, 전시회의 개최
- (4) 생활미술품의 개발 및 보급
- (5) 홍보 및 출판활동
- (6) 타문화 단체와의 교류
- (7) 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활동



## 제 2 장 회 원

제 5 조 ( 회 원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일반회원

(2) 활동회원

(3) 후원회원

제 6 조 (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제 7 조 ( 가입절차 ) 본 회의 회원은 소정양식의 회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냄으로써 가입할 수 있다.

제 8 조 ( 권리 ) 회원은 본 회의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건의  
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사업에 따른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9 조 ( 의무 ) 회원은 본 회의 규약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  
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 10 조 ( 징계 )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  
예를 실추시킨 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11

제 12

제 13



#### 제 4 장 재 정

제 17 조 ( 재 정 ) 본 회의 재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1) 수입 본 회의 세입은 월회비 및 입회비와 기부금, 찬조금, 기타 수익 사업금으로 한다.

(2) 지출 : 예산 및 사업비로 지출한다.

제 18 조 (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제 19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제 규칙 및 민주적인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0 조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 21 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업 내 용

우리 그림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 1) 민족 미술의 창작과 보급 활동
  - 서민 대중의 삶과 민족 현실의 인식에 기초한 미술의 창작 및 전시.
- 2) 미술문화에 대한 제반 조사 및 연구 활동
  - 미술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보관
  - 민족미술에 대한 이론 정립을 위한 연구 활동
- 3) 정기적인 미술 강좌, 전시회의 개최
  - 년 2회의 정기 미술학교 개설
  - 매체별·직능별 강습 및 전시회의 개최
- 4) 생활 미술품의 개발 및 보급 활동
  - 달력, 엽서, 옷그림 등 생활 미술품의 개발과 보급
- 5) 홍보 및 출판 활동
  - 월 1회 소식지의 발행
  - 회보 및 화집 등의 발간
- 6) 타 문화 단체와의 교류 활동
- 7) 기타 본 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활동
  - 회원 수련 및 친목을 위한 행사
  -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

## 창 립 선 언 문

이 땅 한반도는 이제 우리의 것이다. 더이상 외세문화·퇴폐·향락적, 허위 지배문화속에서 우리들의 정신이 썩어가도록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우리의 문화가 말살되더니 해방후, 건강한 우리문화를 회복하기는 커녕, 또다시 미국의 신식민지 사회구조로 변질, 재편성되면서, 미 일 외세의 퇴폐적·향락적·소비지향적 문화가 마치 우리의 문화인 양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란 무엇이고, 더우기 우리 그림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의 문화란 우리 삶의 모든 지혜가 집약되어 살아 움직이는 정신노동의 산물로, 대중이 주체적으로 창조하고 다같이 즐기는 우리 삶의 활력소인 것이다. 또한 그림은 대중의 삶속에서 대중의 바램과 염원을 그려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실제로 그것이 대중의 삶을 변화·발전시켜 낼 수 있도록 종사하는 생산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림은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환경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미의 희소성, 유일성, 고급성 등의 예술지향주의로 공허한 미의식만 조장하는가 하면, 온갖 광고선전물과 거리의 포스터 및 대량복제 그림은 생활에 지친 대중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저질 상품화 경향으로 대중의 삶을 외면한 채 건강한 삶을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분리되어 대중은 단순한 감상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즉, 그림이 대중의 바램과 염원을 그려내는 삶의 표출로서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린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바로 이곳, 안양은 어떠한가? 안양은 생산도시로서의, 그리고 소비도시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번가 중심으로는 서울 명동 못지않은 소비지로 다수의 노동자뿐 아니라, 안양시민 전체가 자기생활 문화를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갈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역상황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기존 미술에 대한 반성속에서, 현재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있고,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온갖 잡스럽고 허위에 가득 차 있는 문화·예술 미술현실을 변혁해 나가고자 이 자리에 모이었다.

우리는 외세문화·상업적 퇴폐 향락적 대중문화를 거부한다. 우리는 그림이 더이상 소수 특권층의 정신적 전유물이 아니며, 더이상 대중을 구경꾼으로 방치하기를 거부한다.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안양에서, 안양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 염원과 바램을 표현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미술문화의 꽃을 피우고자 한다.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서구세력의 문화적 침투에 대항하여 당당히 우리 것을 내세우고, 올바른 민족문화 풍토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에, 면면히 이어온 민중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림의 맥을 찾고 이를 통해 현시대에 걸 맞는 올바른 미술양식을 창조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중의 잠재된 표현능력을 개발하고, 생활미술품의 보급을 통해 미술의 유통구조를 확대시키고, 삶과 유리되지 않은 미술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그림”의 창립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혼자 외롭게 고민하지 않을 것이며, 안양인 스스로 안양의 건강한 미술문화를 이룩하자!



## 발 기 인 명 단

|                        |                            |                        |
|------------------------|----------------------------|------------------------|
| 강구선 < 카페주인 >           | 박찬중 < 시인 >                 | 이춘호 < 솜씨공방대표 >         |
| 곽대원 < 미술평론가 >          | 박현희 < 화가 >                 | 임영숙 < 행복사대표 >          |
| 권운덕 < 디자이너 >           | 배미숙 < 안양YWCA 회장 >          | 임정조 < 중앙교회장로 >         |
| 김광호 < 인테리어디자이너 >       | 배정옥 < 미술학원강사 >             | 정금채 < 안양노동상담소장 >       |
| 김낙일 < 화가 >             | 서미란 < 디자이너 >               | 정도용 < 화가 > 전용정 < 직장인 > |
| 김문용 < 고대대학원조교 >        | 성기열 < 직장인 >                | 정동현 < 직장인 >            |
| 김명환 < 시인 >             | 송경호 < 안양 E.Y.C 회장 >        | 정미진 < 디자이너 >           |
| 김복림 < 안양민요연구회간사 >      | 송낙조 < 직장인 >                | 정유정 < 화가 >             |
| 김부예 < 디자이너 >           | 송정강 < 안양화방주인 >             | 정한상 < 우신문구사주인 >        |
| 김숙임 < 가정주부 >           | 신연옥 < 교사 >                 | 조선숙 < 의상디자이너 >         |
| 김용덕 < 화가 >             | 신화섭 < 좋은인상대표 >             | 조성연 < 국연구가 >           |
| 김용태 < 화가 >             | 안종도 < 네트워 크인테리어대표 >        | 조충규 < 화가 >             |
| 김우선 < 일러스트레이션 >        | 원동석 < 미술평론가 >              | 주완수 < 화가 >             |
| 김정옥 < 학원강사 >           | 오승환 < 화가 > 오용길 < 이화여대 교수 > | 채윤기 < 수원민주문화운동 연합사무장 > |
| 김춘자 < 빈미술학원원장 >        | 오정혜 < 유치원교사 >              |                        |
| 김태균 < 안양민요연구회사무장 >     | 윤철우 < 편집디자이너 >             | 최민화 < 민족미술협의회 사무국장 >   |
| 김한일 < 화가 >             | 윤해경 < 안양민요연구회간사 >          |                        |
| 김현자 < 교사 >             | 이강식 < 탈공방대표 >              | 최병렬 < 근로자회관간사 >        |
| 라원식 < 미술평론가 >          | 이금련 < 근로자회관 >              | 최중현 < 성원교회목사 >         |
| 류봉현 < 미술교사 >           | 이대수 < 들샘교회목사 >             | 최춘일 < 화가 >             |
| 맹선화 < 화가 >             | 이명자 < 직장인 >                | 한균희 < 삼성서점주인 >         |
| 문영태 < 화가 >             | 이범자 < 예인미술학원 >             | 한동희 < 일심서예원 >          |
| 박광배 < 엠마오서적 >          | 이병택 < 안양문화원장 >             | 한성인 < 근로자회관관장 >        |
| 박경원 < 시인 > 박경숙 < 직장인 > | 이석용 < 전국회의원 >              | 홍대봉 < 불교미술연구소 >        |
| 박근수 < 화가의플래트 >         | 이소영 < 직장인 >                | 홍미경 < 직장인 >            |
| 박신원 < 건축가 >            | 이억배 < 화가 >                 | 홍선웅 < 화가 >             |
| 박신자 < 조각가 >            | 이영선 < 직장인 >                | 황은화 < 화가 >             |
| 박영근 < 시인 >             | 이종태 < 안양독서회대표 >            | 황용훈 < 화가 >             |
| 박진화 < 서울미술공동체대표 >      | 이주관 < 협성광고 >               | 황해룡 < 장내동성당보좌신부 >      |
| 박찬웅 < 화가 >             | 이주영 < 화가 >                 |                        |

##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 회원이 되시면 .....

- 본 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자유로이 참여하실 수 있는 권한
- 정기 강습이나 강좌에 참여하실 수 있는 권한
- 회보 및 각종 문화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권한
- 본 회의 판화작품 및 문화상품 구입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회원 -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

(입회비 10,000 원 월회비 1,000 원)

학생, 생산직 노동자 (입회비 5,000 원 월회비 1,000 원)

단체 (입회비 30,000 원, 월회비 3,000 원)

\* 활동회원 - 전문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본 회에 직접 참여, 활동을 원하시는 분 (입회비 10,000 원 월회비 1,000 원)

\* 후원회원 - 건강한 우리문화를 건설하고 올바른 미술문화의 풍토를 이룩하려는 본 회와 뜻을 같이하시는 개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44-8942

\* 온라인번호 - 조흥은행 503-6-220777

국민은행 209-01-0376-539 박 찬 응